

英才教育研究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1997, Vol. 7, No. 1, pp. 145~164

Sternberg의 성공지능(SI)에 관한 고찰

- IQ, EQ를 넘어선 지적 재능을 갖춘 사람을 찾아내는 방안 탐색 -

김 정 휘

(춘천교육대학교)

I. 머리 글

심리학 특히 교육심리학계에서 오늘날 탁월한 명성을 자랑하는 두 분의 학자를 찾는다면 Gardner교수(Harvard 대학)와 매우 창의적이고 先導的인 연구업적을 활발하게 발휘하고 있는 Sternberg교수(Yale 대, IBM 심리학)를 지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최근에 Sternberg 교수는 매우 신선하고 창의적인 착상 (Creative idea) 이 돋보이는 책을 펴냈는데 이 글은 성공적 지능이라고 제목이 붙여진 그의 책 내용을 발췌하여 논평을 곁들여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Robert J Sternberg (1996) *Successful Intelligence : How Practical and Creative Intelligence Determine Success in life*. New York : Simon & Schuster. 303.

이 책은 Sternberg 자신이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심리교사에게서 비활성(非活性· 활동력이 없는) 이완된 지둔(遲鈍)한 지능(inert intelligence)을 쥘다고 후일 혹평한 고전적 IQ 검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능아로 낙인찍혔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는

부당한 대접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이 때 받은 충격적인 경험으로 후일 그는 IQ검사 혐오증을 갖게 되었고 이어서 기존 IQ 검사의 한계를 발견하고 비판하면서 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장차 성공하려면 IQ를 맹신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공부하는 머리와 살아가는 머리는 다르며(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것과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별개다) 인생에서의 성공에는 또는 성공적인 삶은 살아가는 머리 즉 성공의 정확한 지표가 되는 성공 지능(Successful intelligence- ce, SI·SQ)이 그 핵심이라는 신념을 갖고 성공 지능의 본질, 활용기법, 성공 지능의 구성요인, 성공 지능인의 특성 등을 탐구하고 이론적으로 체계화시켜 그의 지능관을 발표한 책이다.

이 책의 전체적인 맥락은 교육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기존의 IQ 검사, 지능의 개념에 대한 불신과 그 대체 방안으로서 성공 지능(Successful intelligence, 아마도 우리 나라에서 최근에 IQ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윤리지수와 EQ가 선풍적인 인기·유행을 타고 있는 것처럼 SQ로 불려질 가능성이 있다)을 소개하고 탐구할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동시에 EQ와 SQ관련 책들이 소개되고 있다. Sternberg가 이 책에서 의문을 갖고 탐구하려고 시도한 문제를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비활성 지능을 채고 있는 기존 IQ 검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2) 인생의 목표(Sternberg는 성공적인 삶(의 내용과 모습을 어떻게 설명이 되던지간에)이 모든 사람이 원하고 공감하는 인생의 목표라고 규정했다)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능, 즉 성공 지능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증거는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가?
- (3) 성공 지능을 개발·활용하는데 따르는 장애물은 무엇이 있는가?
- (4) 비활성 지능, 통칭 우리가 부르는 IQ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그 단점은?
- (5) 성공 지능에 이르는 활용하는 조건과 절차는 ?
- (6) 성공 지능의 세 가지 구성 요인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성공 지능이라고 책의 제목을 붙인 이 책은 비활성 지능을 주로 채는 기존의 IQ 검사, 학력 검사 점수는 높지 않지만 시험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편견(시험점수=그 사람의 인격, 진로, 생애, 학벌)을 극복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며 인생에서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하려는 사람에게 희망적이고 도전적인, 나아가서 자신이 처한 불우한, 역경에 처한 환경에 무기력하게 끌려가거나 종속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기회를 창출해 내 인생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젊은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과 같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플라톤은 지적으로 뛰어난 철학자가 지적으로 열등한 동포들을 현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통치해야 한다고 엘리트 지배론을 주장한 바 있으나, 그의 견해에 대한 판단의 몫은 독자들에게 돌리고,

Sternberg는 플라톤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 보지 않고, 그는 인생에서 학교(시험) 점수, 검사(IQ TEST)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너처럼 똑똑한 아이가 어떻게 그런 멍청한 짓을 할 수가 있니? 라는 의문이 암시하는 바대로 Sternberg 박사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는 것(비활성 지능)이 곧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해 냈고, 이 책에서 그는 인생이라는 Drama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열쇠(성공 지능, 즉 학교에서의 우등생이 아니라 인생에서의 우등생)를 찾아냈다고 명쾌하게 그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삶의 실체인 직장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성취도와 학교생활에서 요구되는 성취도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SI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Sternberg교수는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창의적 지능(Creative intelligence)과 실천적 지능(Practical intelligence)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능력은 학교나 가정에서 적극 권장하지도 않고 또 가르쳐 주지도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를 소홀히 하게 되는 반면 학교는 실사회에 나가면 필요가 없게 되는 비활성 지능(inert intelligence)을 더 많이 개발시키고 포상, 격려, 강화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도 시키지 않고 또 길을 잘못 가게하고 있는 것이라고 현행 학교 교육의 방법을 비판하며 학교는 마땅히 실생활을 준비시키는 교육을 해야 한다. 즉 창의적 지능과 실천적 지능을 학교 교육의 몫으로 포함시켜 학교교육의 기능을 보다 확대시키거나 비활성 지능 위주의 학교교육을 탈피·전환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주장(主張)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살아가야 할 실생활은 비활성의 분석적 지능(analytic intelligence)만이 아니라 성공 지능(창의적 지능+실천적 지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Sternberg의 성공 지능관은 근본적으로 사회·심리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II. 비활성 지능(inert intelligence)의 문제점

기존의 IQ 검사, 대학진학 적성검사, 대학입학 수학능력 검사, 미국대학원 입학검사, 미국 의과대학, 법과대학 입학 검사(GRE, CMAT, SAT, MCAT), 기타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시험에 의해서 나타난 수치 또는 기존의 학력 검사로 측정하여 나타난 결과는 비활성 지능(inert intelligence)이다. 그런데 Sternberg교수는 객관성, 평가의 용이점 등의 이유 때문에 각종 검사도구가 널리 애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도구들의 활용상의 유의점으로 시험성적의 분명한 혜택뿐만이 아니라 감춰진, 낭비되는 손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검사들은 서양 어린 이들 중심의 서구식 교육에 길들여진 문화권에 알맞게 만들어졌고, 이들 검사가 재는 지능은 학습

지능(academic intelligence)에 한정하며, 나이 든 사람보다 학생이나 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이 취향의 검사이다.

기존의 검사(IQ 검사를 포함하여)는 성공의 진정한 지표인 성공 지능을 측정하지 못하며 IQ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소비자·수용자일 뿐 그것을 사회에서나 인간관계에서 되돌려 주는 생산자, 지식의 창출자 역할은 수행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은 남을 설득하지도 못한다.

종래 우리가 애용·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지능검사(IQ Test)는 단지 사실을 암기하거나 그 사실을 논증하는데 필요한 즉 학교공부(주로 교과서 중심이거나 교사중심의 수업)를 하는데 필요한 머리(두뇌)~정보처리 능력~에 관한 것을 재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유일한 사명이 이러한 능력 개발·육성인 것으로 오도(誤導)되고 있다. IQ 검사의 또다른 문제점을 예시해 보면 자기 자신의 삶이나 타인과 더불어 사는, 공존하는 삶에 영향을 끼치는 즉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나 기술(Technique)에 관한 것을 재는 것이 아니다.

IQ 검사에 의해 측정된 능력이 뒷날의 수행(遂行, performance)의 성취를 결정짓는다는 생각이나 IQ의 높낮이가 곧 인생의 성공·실패 지표라는 개념도 잘못된 것이고 IQ 검사결과는 통계학적 연관관계만 알려줄 뿐이고 인과관계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는 IQ 검사의 내재적 가치보다 사회에서의 인식도가 과대 포장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존의 IQ 검사나 학력 검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지 그가 앞으로 이루어 낼 미래의 성취도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결점이 있다. 위에서 열거한 여러 문제점들은 IQ 검사에의 지나친 의존도가 사람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행 IQ 검사는 실생활의 성공에 덜 중요한 또는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능의 여러 측면을 측정한다. 현행 학력 검사나 IQ 검사의 또다른 문제점을 지적하면, 출제 형식이 사지 선다형인 문제는 창의성을 허용하지 않으며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문제를 풀어낼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이 뛰어난 학생이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풀려면 정말 숨이 막힌다. 더욱이 사지선다형 문제는 학생이 자신의 지식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지 못한다.

우리의 현행 교육제도나 가치관이 분석적 지능이 뛰어난 학생을 격려하고 인정하는 쪽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따라서 IQ 검사나 학력검사도 그러한 학교 문화에 동조하거나 강화시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Sternberg 교수는 IQ 검사나 학력검사에 대한 비판문~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겠으나~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인간의 수행능력이나 성장 발달가능한(잠재) 능력의 실체를 제대로 측정·평가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학력평가 체제, 예컨대 IQ 검사나 학교·대학입학 수학능력

검사의 제작 방식을 전면적으로 ~미시적 평가에서 거시적 평가 쪽으로~바뀌야 하는 도전의 과제를 학계에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Sternberg 박사의 통찰력 있고 창의적인 그의 참신한 이론은 영재급 창조적 이론가, 연구자의 진면목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생각되며 아마도 기존의 교육심리학, 교육평가, 심리측정, 심리검사, 심리학 개론 분야의 교과서, 연구물들은 성공 지능, 비활성지능, 감성 지능, 분석적 지능, 창의적 지능, 실천적 지능 항목들을 새롭게 추가하여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기존의 평가의 체제를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Sternberg 박사가 비판한 비활성(inert)의 뜻을 살펴보면,

미국 헤리티지 영어사전(1992년 판)

- 움직이거나 활동할 수 없는 상태
- 다른 요소와 즉시 결합하지 못하는 상태

민중 Essence 영한 사전 (1996년 판)

- 육체적 · 정신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 생기가 없는, 둔한, 활동력이 없는
-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무기력
- 반발력이 없는

Oxford 혼비 영영한 사전 (1981년 판)

- (제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 활성이 없는
- (정신 · 육체가) 둔한
- 꿈 뜸, 둔함

Sternberg에 따르면, 기존의 현행 IQ 검사, 학교의 시험은 모두 이 비활성 지능(inert intelligence)을 재고 있는 도구라는 것이며 따라서 많은 귀중한, 아까운 인재를 발견, 육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Ⅲ. 성공 지능(Successful Intelligence)의 개념

Sternberg(1996, 12, 24, 26, 35, 39, 47, 158~61, 208~211) 교수는 성공 지능의 뜻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었다.

성공 지능이란?

- (1)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능이다.
- (2) 인생(삶)에서 숭고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능이다.
- (3)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주위사람들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이 성공 지능은 단지 성취만 하는 사람과 탁월하게 뛰어난 성취를 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 (4) 사업적 감각(Business sense)이다.
- (5) 미래의 성공 지능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지표는 과거의 성공 지능이다.
- (6) 경험에서 배우는 능력과 주위 환경에의 적응능력은 비활성 지능보다는 성공 지능과 기능상으로 더 가깝다. 즉 meta cognition(인지책략을~예컨대, 문제해결, 추론, 분석, 종합, 변환, 대치, 의사결정할 때~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개인이 발휘하는 능력과 더 관련이 있다.
- (7) 성공 지능에 필요한 정신적 능력은 문화권, 직종에 따라 달라진다.
- (8) 분석적·창의적·실천적이라는 세 측면의 생각을 잘 해내고 활용하는 능력이며 이 세 가지 측면의 지능이 균형(조화)을 이룰 때 그리고 필요한 시기와 활용 방법을 알고 잘 선택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Sternberg 교수는 세 가지 지능 중에서 어느 특정 지능이 뛰어나게 발달한 사람만이 우수한 성공 지능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 (9) 성공 지능도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특정 분야에 편중된다. A분야에서 성공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C분야에서도 그러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볼 때 “영재(gifted)”라는 개념은 낡아빠진 지능검사적 사고방식의 유물이다. 물론 영재는 있으나 그의 재능은 어느 특정 분야에 한정된다(P.197)는 Sternberg의 견해는 모든 분야에서 평균적으로 재능을 발휘하는 달인으로서 영재의 개념을 배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10) 성공 지능은 정적이라기보다는 동적인 지능이다. 개인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려는 의욕을 갖고 부지런히 노력하거나 성취동기(n Ach)를 발휘하려고 노력하면 성공 지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 (11) 성공 지능은 단순히 인지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는 방법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reflective attitude)의 구현도 포함된다.
- (12) 성공 지능(인)은 늘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늘 자신의 결정사항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면서 오류가 있을 때는 발견 즉시 시정한다.

많은 학생을 가르쳐 본 교사는 학생들 중에 학교 공부는 잘했는데 사회생활에서는 고전을 하는 경우(흔히 학교에서는 우등생 사회에서는 열등생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주인공이다)와 반대로 학교 공부는 잘 못했지만 사회에서는 성공한 경우를 흔히 경험한다. 이러한 사실은 학교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인데 이에 관한 문제 제기에서부터 성공 지능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IV. 성공 지능의 구성 요인

Sternberg의 해석에 의하면(1996, 127~147) 성공 지능은 분석적·창조적·실천적이라는 세 측면의 생각을 잘(균형 있게) 해내는 능력이다(Successful intelligence is most effective when it balances all three of its analytical, creative, and practical aspects). 그러나 우리의 학교 교육 상황을 살펴볼 때 시험(검사)나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수업(강의)이나 학교의 교재는 오로지 분석적 지능~비활성 지능~만을 중시한다. 학교 공부할 때, 학창 시절에 똑똑함(smart)의 지표로 삼는 그런 지능은 어른이 되면 창조적 지능이나 실천적 지능보다 쓸모가 없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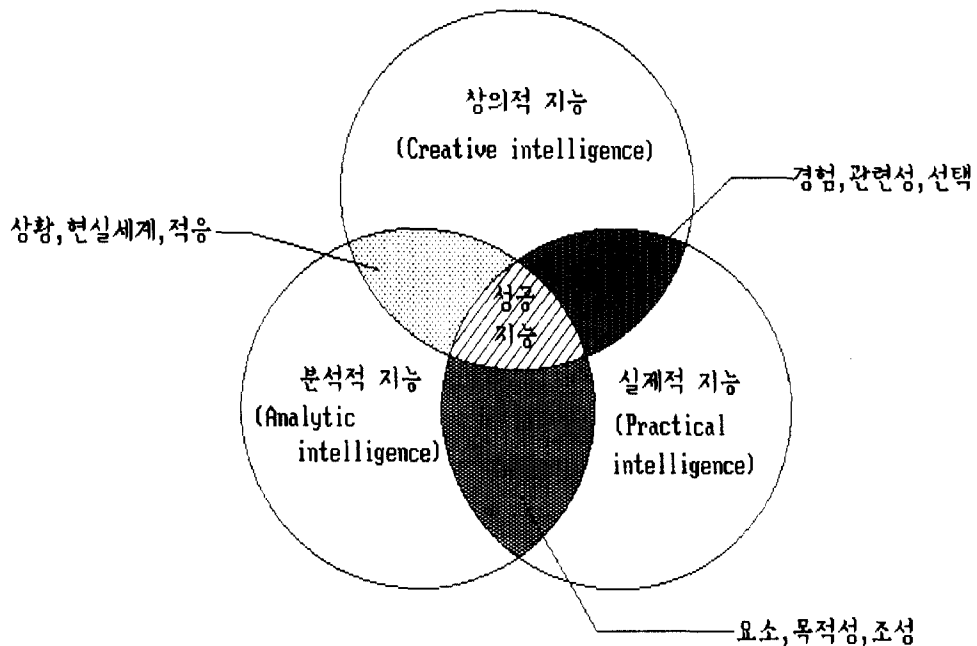
성공 지능의 세 측면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기능과 쓸모(용도·쓰임새)는 서로 다르다. 문제를 해결하고 착상(idea)의 질을 판단하는 데에는 분석적 지능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점과 착상을 훌륭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창의적 지능(creative intelligence)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상 생활에서 훌륭한 착상과 분석 방식을 활용하려면 실천적 지능이 있어야 한다.

성공 지능은 분석적·창의적·실천적 지능이라는 세 측면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러한 세 측면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이를 적합하게 활용하는 시기와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공 지능인은 다만 위에서 제시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능력을 적합하게 사용하는 시기와 방법을 늘 생각한다. 이제 Sternberg 박사가 그렇게도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성공 지능의 중핵인 세 가지 구성 요인의 성질과 역할을 보다 구체

적으로 검토해 보자.

최근에 Sternberg(1996)는 창의적 지능(Creative intelligence)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것이 성공적인 삶의 결정조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의 견해는 열린 사고, 즉 창의성과 수렴적 사고와 관련된 닫힌 사고, 즉 지능이 서로 대칭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온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해석이기 때문에 고찰이 필요한 論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Sternberg는 정보처리 이론의 관점에서 삼차원론적 지능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그림 1> Sternberg의 지능의 삼위일체

창의적 지능(Creative intelligence)은 새로운 문제를 풀기 위해 자신의 내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다루면서 창조하고 발명하며 설계하는 능력이고, 분석적 지능(Analytic intelligence)은 기존의 경험한 문제, 즉 익숙한 문제에 직면하여 제기된 문제의 구성 요건들을 분석하고(무엇이 문제인가?) 비교, 평가하는 능력이다. 실제적 지능(Practical intelligence)은 외부세계를 다루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자료, 경험을 응용하고 사용하며(반응하며) 수행하는 능력이다. 그는 지능 측정에서 수량화하여 산출하던 기존의 IQ검사와는 다르게 내용(qualitative) 중심의 측정방법의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1. 분석적 지능(Analytic Intelligence, AI)

이 분석적 지능은 암기 재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창의적 지능보다 IQ 검사나 여러 시험(고사)에서 측정하는 것은 이 분석적 지능을 재는 것이다. 우리의 현행 교육제도는 분석적 지능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있으며 강화한다. 학교에서는 분석적 지능이 쓸모가 있으나 졸업 후 사회에 나가면 삶의 주인공(내 인생은 나의 것)이 된 상황에서는 분석적 지능(AI)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아(쓸모 없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효용성(效用性)이 떨어진다.

외국어 학원(공부)이나 자연과학(이과) 계열의 학습은 분석적 지능에 크게 영향받는다. 뛰어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과 현실 생활 모두에 영향을 강하게 끼치는 독창적이고도 의미 있는 착상을 개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창의적 지능보다 분석적 지능이 더 우대 받는 경향이 있다. 생물학자 James Watson은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여러 번 자신의 IQ가 낮다고 말한 바 있으나 IQ와 상관없이 DNA분자의 구조를 공동연구자와 함께 발견했고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다.

Sternberg교수의 의견에 의하면 높은 IQ 소유자가 인생이라는 Drama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이 분석적 지능을 너무 과신하거나 의존하는 대신 나머지 창의적 지능과 실천적 지능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¹⁾ 즉 논리적 명쾌함(교육철학자들의 논리처럼)이 우수한 것이 부부사이의 갈등을 푸는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많은 예에서 발견한다. 성공 지능은 이 분석적 지능을 사용해야 할 때와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게 해 준다.

이 분석적 지능은 실생활에서의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안되는 비활성 지능이며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창의적 지능과 실천적 지능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것이다.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창의적 능력과 실천적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학교에서 적극 권장하지도 않고 또 가르쳐 주지도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를 소홀히 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학교는 사회에 나가면 별 쓸모가 없어지는 능력을 더 많이 개발시키고 포상함으로써 삶의 기술, 방법을 가르치거나 준비도 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마땅히 실생활을 준비시키는 교육을 해야 한다.²⁾ 왜냐하면 실생활, 불확실성의 시대는 삶의 책략으로서 분석적 지능이 아니라 성공 지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학 영역 중에서 조직 신학 분야가 있는데 아마도

1) 성공 지능의 구성요건인 분석적 지능, 창의적 지능, 실천적 지능 중에서 어느 것이 필요·충분조건인지, 또다른 삼위일체 지능론인지 또는 상호 견제, 조절, 제어 책략은 어떻게 기능 하는 것인지, 고등정신 기능상의 위계는 어떻게 분류해야 할 것인지는 분명치가 않다.

2)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정부와 교육관계자, 가정교육의 몫이다.

그 내용과 관련 지식이 분석적 지능과 유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직성을 자랑하는 관료사회, 법체계는 분석적 지능의 탁월함을 자랑한다. 그러나 완벽함을 자랑하는 법조문도 허점이 많고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키고 변호사는 법의 허점을 잘도 찾아내는 경우를 많이 발견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 환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는 의학 박사,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교재의 범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심리학자, 교육자, 사람을 다루지는 않고 교과서에만 의존하도록 가르치는 선생님, 공문사항, 훈령에 매달려 업무 처리하는 공무원, 중요한 것은 이미 선현(先賢)들이 다 발견했다고 가르치는 교사, 문제분석이나 비판은 잘 하지만 처방을 제시하거나 해결할 줄 모르는 회사 경영자들을 이 사회는 양산하고 있다.

이 분석 지능은 IQ 검사에 의해서 측정되는 학업지능(academic intelligence)과는 다른 것이다.(155) Sternberg는 IQ 검사는 분석적 지능의 한 부분 주로 학교 공부수행에 적합한 학업성적만을 측정한다고 해석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지능은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기존의 지능검사에 의해 측정되는 분석적 지능은 그 자체만으로는 학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또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생활에서의 성공도 보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분석 지능은 성공 지능의 첫 번째 열쇠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열쇠는 아니다.

(Despite limitations, analytical intelligence is certainly important in good problem solving and decision making, the hallmarks of successful intelligence. But it alone, as measured by conventional tests, is no guarantee of academic success, nor as applied in nonacademic settings such as the business world, is it a guarantee of good judgment. Analytical intelligence is the first, but not the only, key to successful intelligence. Sternberg, 1966, p.187)

2. 창의적 지능(Creative Intelligence, CI)

우리의 교육 풍토를 살펴볼 때 학교 교육의 실제에서 창의성은 거의 무시되고 거부되는 형편이다. 그래서 학교가, 사회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창의성이 높은 학생들은 탄식하고 있다. 실제로 창의적인 행동은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학생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교사들은 창의적인 학생을 격려하기보다는 학생의 창의적인 태도를 징벌하는 경향이 있다.

건전한 상식을 뒤엎으며 가끔 돌출하는 참신함을 발견하게 하는 이상한 예외라고 인식되는 것이

창의적인 지능이다.

창의적 지능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착상(idea)을 구안하는 기능인데 분석적·실천적 지능과 서로 독립적으로 기능한다. Sternberg 박사는 창의성이란, 지능의 세 가지 국면~분석·창조·실천~을 알맞게 응용하는 것이고 또 이 세 가지 측면 사이에 균형(조화)을 모색하는 과정인데 지능의 이 세 측면을 삶이라는 Drama에서 잘 활용하면 성공 지능을 구현하게 된다고 규정했다.(191)

기존의 지능 검사의 구성 요인에는 이 창의적 지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IQ로는 이 CI를 재지 못하므로 이를 측정, 분석하기 위해 별도의 창의성 검사를 고안, 활용하고 있다. 창의성은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함, 적합함, 품위, 성과의 중요성 등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판단의 결과이다.(Creativity is not something that exists in the abstract ~it is sociocultural judgement of the novelty, appropriateness, quality, and importance of product. Sternberg, 1966, p.199)

성공 지능은 창의적 지능을 활용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을 자각시키며 실천 지능과 함께 자신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최적의 균형을 취하도록 도와준다. 매우 창의적인 사람들이 훌륭한 놀랄만한 착상(idea)을 내 놓으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반 규범적(counternormative)이고 반생산적이며(counterproductive) 나아가 우둔한(foolish) 아이디어라고 매도하고 비웃는다. 그래서 그 착상은 거부되고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표한 주인공은 의혹, 멸시,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이들은 “사회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구나!”라고 탄식한다.

창의적인 사람들이 거부되고 외면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그 속성상 신기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거부될까. 그 이유는 창의적 개혁가(Creative innovator)는 일반 대중에게 도전하고 또 기득권에 저항하여 기존의 이익집단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들 수 있다. 또 사람들은 대체로 친숙하고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믿는 익숙한 사실, 현상에 대하여 친밀함을 나타내고 그렇지 못한 생소한 것에 대해선 경계, 외면, 무시하고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원인이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그리스도가, 종교개혁을 부르짖은 마틴 루터가 얼마나 많은 저항과 배척을 받았는가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창의적인 지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분석적 지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보다 교사에게 인기가 없다. 교사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비활성 지능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비판 없이 다시 회상하여 대답하는 것을(학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어느 한 아동의 사례에서 이 아동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의 부모와 의사는 그를 영재라고 생각했는데, 교사들은 반대로 이 아동을 정신지체아로 보았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그는

교사가 나누어 준 시험문제를 보충하여 제출하거나 내용을 아주 다르게 변형하여 그 변경한 내용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시험점수에도 항상 감점을 받았다. 그의 뛰어난 상상력과 비협조성 때문에 그는 결국 정신지체아라는 평가를 받았다.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지능검사는 이 아동이 규칙적으로 매우 우수한 지능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 지능의 실체, 중요성을 모르고 창의적 지능의 개발·육성도 학교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하고 둔감한 이 교사는 귀중한 인재를 놓치는 일을 한 것이다.

창의성을 연구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분석적 지능이 높은 학생들은 창의적 지능이 매우 높은 학생(뛰는 학생·괴짜)보다 교사들로부터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존의 사고 방식이나 문제해결 방안보다 더 우수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아니 깨닫지 않으려는 태도가 또다른 원인이 된다. 아울러서 일반사람들이 볼 때 창의적인 사람은 기존 규범, 체제, 가치관에 반대만 하는 자이므로 그런 태도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권위 집단들이 보기에 자기들에게 도전세력으로(인물로) 지각하므로 이들의 행태는 불쾌할 뿐만 아니라 참아 줄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창의적 지능이 무시·배척받아 사장되었을 뻔한 경우는 인류역사에서 무수히 많은데 몇 가지만을 소개하면 이단자 갈릴래오, 조소받은 콜롬부스, 박해받은 예수, 추방당한 키케로, 독살 당한 소크라테스, 살해된 링컨, 반광인(半狂人)으로 방랑하다 생을 마친 김 시습, 김삿갓, 난세의 영웅 이순신장군.

Sternberg 는 어쩌면 창의성과 지능은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가정했다. 그래서 창의적 지능(Creative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고 그의 견해를 밝히고 이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만약에 그런 창의적 지능이 존재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측정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개발·육성·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창의적 지능의 존재와 작용상의 결과는 어떻게 설명, 논증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188) 아울러서 그의 견해는 열린 사고로 알려진 창의성과 닫힌 사고로 알려져 있는 수렴적 사고 즉 지능이 서로 대칭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온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창의적 지능을 합성어로 명명했기 때문에 고찰이 필요한 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Sternberg 교수는 창의성과 지능은 어쩌면 서로 배타적인 개념(mutually exclusive)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창의적 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Sternberg에 따르면, 창의적 지능은 결국 하나의 고귀한 능력이면서 동시에 인생을 대하는 태도이고 삶의 기법(technique)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 자란 청소년이나 어른들에게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창의적 지능의 잠재력이 사라져 버려서가 아니라 분석적 지능에

의 순응을 강요하는 학교제도에 의해 억압되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던 창의적 지능이 유리상자나 보이지 않는 큰손에 의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아동들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착한 어린이란다. 책에 그려져 있는 줄을 따라서 그림을 그대로 그려야 돼요. 너는 하라는 대로 참 잘했구나. 그러니 모범생이네. 자 상을 받아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 못 써요.

이래서 천부의 창의적 지능(natural creativity intelligence)은 억압당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어린이들이 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창의력이 사라진다. 학교는 어른이 아동에게 원하는 것을 해야 칭찬을 받는 곳이기 때문이다. 새들이 날 수 없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이 새처럼 날아다닌다면 인간사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와 같은 창의력이 돋보이는 질문을 하므로써 선생님을 성가시게 하는 반항아로 낙인찍히거나 상식적인 생각이나 하지 쓸데없는 엉뚱한 생각이나 하는 이상한 아이라고 인식된다.

학교에서 내 준 숙제를 하기보다 공상의 세계에서 모험을 시도하는 이런 튀는 아이들은 교사들이 이들의 특이한 질문을 수용하고 독창적인 생각을 칭찬해 주고 학생들이 하는 모든 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우수하냐, 열등하냐는 식으로 등급메기는 것을 삼가할 때 아동들은 보다 더 창의력을 나타내고 개발된다.

이 창의적 지능은 모든 분야에 걸쳐 있는 것도,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모든 분야보다는 어느 특정 분야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은 “일반적인 창의적 능력”에 대해서 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도 반드시 창의적인가?에 대한 해답인 것이다. 그런데 요긴한 창의성은 실용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어떤 착상(idea)은 창의적이기는 하지만 실용적이지 못하므로 결국 쓸모가 없게 되는 예가 많다.

그 동안 우리 학교에서는 암기 능력과 분석적 지능이 뛰어난 학생들만을 높이 평가하고 창의적, 실천적 능력을 가진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강했는데 만약 교육의 진정한 방향이 성장·발달 가능한 잠재능력을 개발·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동안의 편향된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고 Sternberg 교수는 역설하고 있다.

3. 실천적 지능(Practical Intelligence, PI)

신입생이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해내려면, 다른 학생들과 잘 사귀는 방법, 과제물을 잘 처리하고 강의의 요점을 잘 파악하는 요령, 과제로 읽어야 하는 책을 잘 읽고 소화하는 방법, 수동적인 태도에서 능동적·적극적으로 대학생활에 임하는 요령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삶의 실체인 인간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우리의 인생살이는 그 여자의 일생, 병어리 삼룡이의 경우에서 보듯이 참으로 사연이 많은데 세상살이에 둔감한 학교가 오로지 한 가지 지능 즉 분석적 지능(대표적인 경우가 우리의 영문법을 위주로 한 중·고교의 영어교육과 국어 시험문제 출제방식이 그 예가 된다.)만을 너무 강조하면 재능이 있는 많은 학생들이 실제보다 덜 지적이라는 평가절하를 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비활성 지능과는 다른 형태의 지능을 평가절하 하는 경향은 Okagaki와 Sternberg(1993)가 수행한 연구 조사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인종집단에 속하는 여러 부모를 상대로 지능관을 물어 보았다. 그 결과 부모들이 사회적 능력~구체적으로 동급생과 잘 어울리고 집안식구를 도와준다던가, 심부름을 하는 등~을 강조하는 지능관을 갖고 있을수록 자녀들은 학교 기준에 비추어 덜 똑똑한 학생으로 평가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부모의 강조사항과 학교의 강조사항이 다른 경우 아이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는 실천적 지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지만, 학교(생활)에서는 지능(분석적 지능)이 떨어진다는³⁾ 학생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밝혀냈다(Sternberg, 1966, p.143). 만약에 이러한 연구결과가 인간육성, 전인육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확신한다면 교육적으로나 교육평가, 심리측정분야의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기존의 학교교육 평가체제나 그 이론의 적용이 주로 비활성 지능, 분석적 지능 위주로 편향, 실시되어 왔고 창의적 지능과 실천적 지능은 전적으로 고려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실천적 지능은 창의적 지능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지능검사로는 측정되지 않는 것이고 또 학교(교육)에서도 충분히 강조되지도 않으며 직장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별로 중요시되지도 않는다.

Sternberg 가 이 실천적 지능⁴⁾ : 일상적인 세상에서 유능성의 본질과 기원이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한 1980년부터 실천적 지능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발표자의 의견으로는 국지적 분쟁이 전쟁으로 확산된다고 할 경우, 또는 지진, 예고된 값 인상을 눈치 채 업자가 실제로 그 가능성의 기미가 보이자 슈퍼나 구멍가게에서 생필품을 사재기하거나 매점매석하기 때문에 동이 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지능이 높다고 할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으리라”는 25시의 작가 게오르규의 느긋함과 여유로움을 성숙한 실천적 지능의 소유자라

3) Okagaki L. Sternberg. R.J.(1993)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4. vol1), 36~56

4) Ceci, S. J. & Liker J. (1980) Academic and nonacademic intelligence: An experimental separation. In R. J. Sternberg & R. K. Wagner(Eds.) Practical intelligence : Nature and origins of competence in the everyday world(pp. 119~142)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고 할 것인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공인 스카렛과 애쉬리의 역할 모형에서 이 세 가지 지능이 어떻게 나타나고 기능하는가를 분석·연구해 보직하다고 본다.

실천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⁵⁾을 빨리 습득하고 활용하는 사람이다. 이 암묵적 지식은 행동지향적인 지식으로 타인의 직접적인 도움이 없이 획득되는 지식이며,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지식이다. 현실 생활에서 높은 성취를 이루려면 이러한 지식의 습득과 활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창업보다 守成이 더 어렵다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기업가에게도 실천적 지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대체로 학구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IQ 검사나 다른 시험에 의해 측정되는 형식적, 학문적 지식(formal academic knowledge)을 빨리 습득하고 활용하는 사람이다.

대학이나 정부 연구소에서 실험물리학 일을 하는 학자·연구자는 현실생활에서는 실천 지능의 특장인 사교육이나 대인관계 매너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은행창구 직원이나 세일즈맨에게는 실천적 지능이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수 조건일 것이다.

우리는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높은 IQ를 가진 의사를 찾아갔다가 별로 신통치 못한 의사라는 느낌을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가끔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진찰을 하는 태도가 영 형편없어서 찾아간 환자를 실망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만약 환자가 의사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면 다음 번에는 그 의사를 두 번 다시 찾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런 의사는 의과대학에서의 우수한 성적이 병원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호전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시 실천적 지능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음가짐(mental set)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적 고착(A 회사에서의 적응방법을 상황과 조건이 다른 B 회사에서도 답습, 써먹으려는 것)이 성공적 지능의 저해 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여간, 이 실천적 지능을 분석적·창의적 지능과 결합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Sternberg 박사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5) 암묵적 지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방법에 대한 지식이며 그 성질상 절차에 관한 것이다. 둘째,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목표의 달성과 관련이 있으며 교사들이 학생의 머리에다 억지로 주입시키는 학문적 지식은 아니다. 셋째, 자학자습, 독학과 같이 다른 사람의 결정적인 도움이 없이 혼자 힘으로 습득된다. 이것은 행동이나 기술로부터 추론될 뿐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성격상 암묵적이 될 수밖에 없다. 진술의 형식이 만약 그렇다면(if then) 어떻게 될까와 같이 양보구문의 형식을 취한다(236). 이 암묵적 지식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습득·학습되는 것이다. 즉 경험으로부터 배워 얻는 것이다.

V. 성공 지능을 개발·활용하는데 따르는 장애물과 대처 전략

첫째, 성공 지능의 개발에 방해가 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유의미한 타인 즉 자신의 성장, 발달이나 진로 설정(선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권위 있는 인물들이 나에게 대한 부정적인 기대 수준이다.

권위 있는 유의미한 타인들이 나에게 대한 편견, 왜곡된 지각 향성이나 기대가 학생들의 자아개념으로 투영이 되고 재투입(feedback)되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자아충족적 이론(self-fulfilling prophecy theory)의 효과는 다 알려진 이론이 아닌가. 즉 어느 특정 인물에 대하여 권위 있는 인물의 현재의 지각향성이 미래의 행동을 예측한다는 것은 고전적 행동주의 이론에 의해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성공 지능을 가진 사람의 대응

성공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위 있는 인물의 조언을 받아 들여야 할 때도 알지만 조언을 거부해야 할 때도 안다. 즉 그는 IQ 검사, 학력 검사상의 낮은 점수가 야기하는 부정적 기대치에 도전, 반발할 줄도 안다.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평가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리고 삶의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장애물 출현을 예상하고 극복하는 데 능력을 발휘한다.

둘째,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기대치)를 갖는 것과 이 기대치가 당사자에게 전염되어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성공 잠재력까지 박탈해 버리는 것이 성공 지능인의 또 다른 장애물이다.

성공 지능을 가진 사람의 대응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뭐든지 해 낼 수 있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 어떤 일을 해 내느냐 못 하느냐는 자신감에 달려 있는데, 실제로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못해, 그렇게 어려운 과제를 내가 어떻게 하지'라고 성공기대보다 실패기대를 갖기 때문이다.

셋째, 성공 지능의 실현을 방해하는 또다른 장애는 개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과정에서나 목표 달성에서 역할 모형(모범모형, role model)의 부재이다.

성공 지능을 가진 사람의 대응

성공 지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강력한 인물(역할 모형)을 마음속에 갖고 있다. 이런 인물들은 그들로 하여금 성장·발달 가능한 잠재능력을 개발하게 해 주고 또 실패나 좌절의 길에서 벗어나 성공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이런 인물들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역할 모형에 접근하거나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창업자는 이미 성공한 기업가가,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문 후속세대는 권위 있는 학자가 모범모형으로서 동일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성공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성공 지능인)은 적극적으로 역할 모델을 찾아나서고 발견하면 그 비법을 전수받는 역할 모델을 활용한다. 그는 평생동안 여러 명의 모범 모형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바로 이런 모델들의 가장 좋은 점만을 성공적으로 통합하기 때문에 성공한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어떤 역할 모델을 일방적으로 추종하고 짝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여러 모델로부터 장점, 필요한 점을 찾아내고 동일시하면서 스스로의 뚜렷한 정체성(distinctive identity)을 만들어 낸다. 그는 또한 실패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여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이유와 결과를 밝혀 내고 그들과 다르게 처신하려고 노력한다.

성공 지능인은 인생이란, 제로섬게임(성·패가 확연히 판가름나는)이다라는 함정에 빠져들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이익과 남의 이익을 동시에 생각하는 균형감각을 갖고 있으며, 성공 지능인은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 모두에게 최대한으로 효과적인 해결안 쪽으로 협상을 진행시켜 나간다.(180) 그래서 성공 지능인은 예컨대 노사협정과정에서 자신의 약점을 이용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 협상에서 우위에 서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성공 지능인은 그렇게 남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않는다. 인간사는 절대권력을 잡지 않는 한 이 세상의 일이란, 돌고 도는 것이다.(그래서 인생유전, 회전무대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만약 그가 동료, 고객, 경쟁자(피고용자) 등을 이용했다면, 결국에는 그렇게 이용한 사람 자신도 다른 사람에 의해 이용당하게 된다.

넷째, 사람은 일단 멋진 창의적 착상(idea)을 개발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평생을 그 아이디어만 쫓아다니는 경향이 있다. 다음 번에 개발한 착상이 지금 것 보다 못할 수도 있고 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성공적인 상태가 다음 번의 실패로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 안주하여 더 이상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또한 우리는 박사학위를 받았던가, 고위직에 오르는 등 전문지식이 깊어지면 자만에 빠지게

된다. 자신의 지식 상태에 너무 만족한 나머지(자아도취) 알 것은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게 된다. 그 결과 새로운 착상을 개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새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것도 시들해져 버린다.

성공 지능을 가진 사람의 대응

성공 지능인은 자발적으로 성장한다. 따라서 비교적 성장 동기(growth motive)가 강렬하고 왕성하다. Sternberg 박사 자신은 삼위 일체 지능이론을 발표한지(1986) 2년 뒤에 역시 세 부분으로 구성된 사랑이론(1988)을 발표했고 그 뒤를 이어서 이번에 세 가지 요인으로 개념구안(conceptual scheme)된 성공 지능 이론을 발표했는데(1996) 평자는 왜 그의 이론은 모두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는 물음에 “3”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정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는데 Sternberg 자신이 계속해서 창의적 업적을 발표하여 탁월한 명성을 발휘하는 것은 전문지식의 노예가 되기 쉬운 안일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과 타인이 정한 올가미(속박)에 갇히기 전에 스스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끝맺음 말

Sternberg 연구에 의하면(1996, p.148) 창의적 능력이 뛰어난 집단과 실천적 능력이 뛰어난 집단의 학생들은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으며 학교에서도 최우등생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학문적 신념은 세 가지 능력 모두 좋은 점수를 얻은 학생집단이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 분석적 능력이 우수한 경우만을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간주해 온 고정관념 즉 기존의 관행(학생觀)의 수정과 좋은 수업(good teaching)은 성공 지능의 세 가지 구성 요인 모두가 종합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아울러 강조했다.

그리고 성공 지능의 세 가지 능력이 비교적 우수하지만 학교 성적은 그리 높지 않았던 학생들은(이 경우 학교성적은 주로 관행대로 분석적 지능 위주로 평가됨) 평균 이상의 성취도를 보여 주었는데 분석적 지능(비활성 지능) 위주의 평가는 성공 지능의 세 가지 능력이 균형 있게 평가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학생의 수행능력을 과소(축소)평가한 것이 된다.

학생들에 따라 분석적 지능이 우수한 학생, 창의적 지능이나 실천적 지능이 각각 우수한(그러나

다른 능력은 덜 우수한) 학생이 있는데 취약한 측면의 능력을 보충, 향상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균형 있게 성장·발달하도록 지도한다기 보다는 기존의 학교 교육의 관행이 암기력과 분석력이 뛰어난 학생들만을 높이 평가하고 창의적·실천적 지능에서 수월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들은 교육 실제에서 무시해 왔다~그것은 인재의 손실과 관련된다~는 잘못을 저질러 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Sternberg 박사는 만약 학생들의 여러 가지 재능을 골고루 활용하고자 한다면 암기력과 분석적 지능만을 중시해 온 우리의 교육의 관행과 평가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152)

이어서 그는 세 가지 지능의 측정과 세 측면을 향상시키는 지도가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151)

이 책을 읽고 그 뜻을 음미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 성공 지능의 세 가지 구성 요소(AI, CI, PI)간에 내적인 갈등과 견제는 안하는지 의식·무의식의 문제와는 무관한 것인가?
- Freud의 심리구조(Id, Ego, Superego)나 Piaget의 발달이론이 취하고 있는 단계의존설과는 무관하고 Erickson의 성격 이론처럼 SQ는 심리·사회적 차원의 성격이론과 맥을 같이하는 것인가. 인간 발달과정 또는 발달과업 이론과의 연관성은? Argyris의 성숙·미성숙이론 그리고 EQ(윤리·감성지수)와 연관성은?
- 성공 지능의 세 가지 구성 요건을 어떻게 개발, 육성, 측정할 수 있으며 SI의 발전, 육성을 위한 교사와 교육, 가정의 역할은?
- 성공 지능과 지도력(leadership)간의 관련성은? 단순한 추종자나 동조자보다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들에게 보다 더 필요한, 요구되는 능력인가, 자질인가, 위기관리 능력, 행복한 삶·인간과의 역동적인 관계는 어떠한가?

교육과정 편성이나 개정을 하고자 할 때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Sternberg박사가 신념을 갖고 그렇게도 강조한 성공지능의 세 가지 내적 조건, 즉 분석적 지능뿐만이 아니라 창의적 지능과 실천적 지능의 구성(배분) 비율을 균형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편성해야 한다고 보며, 행복한 인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모형화하느냐에 대한 개념구안을 하는데 있어서 Sternberg의 성공 지능 이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Sternberg의 성공 지능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본다면, 살아가는 방식 중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론과 실제가 균형을 이루고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이루며 내유외강, 공선후사에서 암시하

는 바대로 엄한 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조화와 균형이 잡힌 사람,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전형적인 성공 지능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 식의 문화권에 빗대어 설명할 수가 있다.

이 책 어디에도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권력을 잡는 즉 세속적인 부귀영화, 입신출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공 지능의 실체라는 설명은 없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IQ를 넘어선 지적 재능을 갖춘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교육자 여러분이 이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 세상에는 재주를 발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쓰임새가 많은데 종래의 IQ는 그 많은 재주와 쓸모 중에서 한 가지만(분석적 지능~ 암기력)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성공 지능의 세 가지 구성요인이 성공에 이르는 과정변인(Process variable)으로, 즉 성공을 이끌어 내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점을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Sternberg는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인간의 성공에 대한 처세술을 다룬 세속적인 성공학(?) 관련 책은 아니다.